

105회기 총회 참관기

“모든 교회가 함께하는 총회가 되기를 바라며”

5월이면 신록의 푸르름과 함께 예성 교단에 속한 우리 교회들에게는 교단 총회가 열리는 계절이다. 매년 한 번씩 열리는 총회이지만 참여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회에서 대의원으로 선출된 목사, 장로들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이다.

우리 지방회에서는 목사 안수 순으로 대의원을 선출하다 보니 여성인 나눈 여 목사 안수제도가 늦게 허락된 이유로 제도적 불이익을 받아왔다. 그래서 회고 선배도, 지방회 입문도, 지방회장을 역임했음에도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2년 동안 대의원이 아닌 상태에서 총회 현장을 기보했을 때, 교단에 소속된 목사님에도 초청받지 못한 사탕처럼 낯설고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다. 주변을 보면 은퇴 시까지 20~30년을 교단의 목사로 목회했음에도 한 번도 총회에 참석해 볼 기회가 없는 분들도 많다.

우리 교회 장로는 대의원으로 총회에 참석하지만, 정작 담임목사는 대의원이 되지 못해 참석하지 못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쉬운 부분이다.

이번 105회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공약에 '전국 교회 담임목사 대의원제도', '10년 이상 교회 담임 대의원제'에 대한 공약은 모든 교회가 총회에 참여하는 의미에서 볼 때 한 번도

대의원자격을 얻어보지 못한 불공정함에서 벗어난 참신한 공약이라 생각했다. 이 공약이 잘 지켜지리라 믿는다. 교단 총회만큼은 소속된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여 만나고, 교단의 미래를 고민하며, 함께 논의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회에서 "16년 만에 처음 대의원이 되어 처음 총회에 참석하게 되었다"고 축하하는 목사님을 보았다. 총회를 참석해 보니 어떠냐고 물으니 "예성 목사로서 자부심이 느껴진다. 아무리 바빠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 번도 총회 참석을 못 해보고 은퇴할 뻔했다는 이야기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나 역시 이번 105회기 총회에 대의원으로 참여했다. 총회가 진행되기까지 준비 위원들의 많은 수고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운영과 진행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다소 아쉬움이 있었다. 한 예로 마이크 소리가 매우 불편했고, 뒤로 좌석이 배치된 지방회들은 1박 2일 동안 명확한 소리를 전달받지 못하고, 무슨 이야기인지? 영상의 준비도 어수선했다. 그대로 보여졌다. 조금 더 세심하고 성실한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총회가 연차대회에 집중되다 보니 정작 회의에 참여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시간에 쫓기듯 진행되는 분위

기 속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교단의 현황이나 논의해야 할 문제들, 개선하고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총분이 논의되고 결정되는 총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105회기에도 많은 공약들이 쏟아졌다. 그것이 단지 선거용 공약이 아니고, 포장된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 실제로 이행되어 건강한 교단으로 성장해 나가는 약속들이기를 바란다.

총회장님의 인사말 가운데 "정통성의 가치를 지켜내겠다. 소통과 화합에 노력하겠다. 책임있는 변화를 하겠다. 열매로 변화를 보여주겠다" 등등 모두가 함께 들었기에 모두가 마음에 담고 왔을 것이다.

105회기부터 예성의 전국 교회들이 총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들이 사라지고 소망을 품는 총회로, 계과정 치에 닫힌 마음들이 열리고 모두가 하나 되는 총회로, 법과 질서를 지켜나아가며 변화와 부흥과 도약이 있는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다.

조명선 목사
아름다운우리교회



105회기 총회에 바란다

“특이점의 시대, 거버넌스 혁신을 이루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제105회 정기총회가 '성결의 빛 120년, 재림 신앙으로 열방을 향하여'라는 주제 아래 강원도 원주에서 성료되었다. 이번 총회는 교단 선교 120주년을 기념하는 연차대회와 동시에 개최되었으며, 신인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선출함으로써 새 지도부를 구성하고 성결교단의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교단 인력의 목회자와 선교사 노령화, 교단 지원의 한계, 그리고 파송 교회의 저성장 고령화 같은 위기 요인들을 총회장과 선교 위원회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인식하고 긴밀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진전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다짐과 미래 비전의 이면에서, 목회와 선교의 최전선에서 있는 현장 목회자들의 관점에서 보는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적 괴리와 구체적 대안 부재가 느껴지는 것은 비단 필리핀의 우려는 아닐 것이다. 앞으로 구체적인 전략과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미자립 교회와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실질적인 재정 확보 로드맵이나 정밀한 실행 전략 없이 단순한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는 양상을 깊이 우려된다.

이러한 당위와 현실 사이의 인식적 간극은 교단의 역사와 정체성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에서 비롯된다. 기독교 역사 학자 아르슬라프 펠리칸은 그의 저서

《전통을 옹호하다》에서 "전통은 죽은 자의 신 신앙이지만, 전통주의는 신자의 죽은 신앙이다"라고 통찰한 바 있다. 교단이 추구하는 역사적 전통이 미래 시대를 돌파하는 생명력으로 계승·발전되지 못하고 과거의 형식을 고수하는 데 그친다면, 이는 살아있는 신앙을 질식시키는 전통주의의 포도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총회 현장과 교회 강단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를 단순한 기술의 도구적 소비 수준으로 머물게 하지는 안 된다.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풀 데이터가 지적인 원동력 2.0의 대전환과 레이 커즈와일이 예측한 기술적 '특이점'의 도래에 대응하여, 깊이 있는 신학적 성찰과 교단 거버넌스 차원의 목회적 고민이 결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존재론적 지위를 위협하고 비물질적 가치마저 재편하는 특이점의 시대에, 현장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간절히 바라는 총회의 역할은 명확하다. 총회는 더 이상 20세기형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행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개교회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유기적이고 스마트한 플랫폼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플랫폼이냐 경고한 '죽어가는 교회의 산호'를 극복하기 위해, 총회는 대형 건물과 조직 유체에 편향된 예산 구조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 그

대신 인공지능 행정 및 선교 플랫폼을 구축해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절감된 자원을 미자립 교회와 고령 선교사의 실질적인 복지 및 의료 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거버넌스의 혁신적 전환이 요구된다.

나아가, 예성 교단의 정체성인 사중복음은 단순한 교리적 유산을 넘어 퀴엄 시대의 실질적 고통을 치유하는 강력한 목회적 도구로 새롭게 해석되어야 한다. 총회는 개교회가 단순한 양적 생존을 넘어 유기적인 네트워크 속에서 '작지만 강한 선교적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목회 진단 서비스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예성 교단이 미래 세대의 열방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하려는 전통주의적 위안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다가오는 거대한 기술 문명의 파고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구체적인 발걸음이 선명한 현실의 대안으로 이어지도록, 105회기 총회가 정책의 영적·지성적 퀴엄 도약을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바란다.

차종관 목사
세움교회



1. 105회 총회에서 당선된 신임원진들이 선서하는 모습
2. 개회예배후 진행된 성찬식
3. 목사안수후보자들이 전 총회장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받고 있다.
4. 군중목사들과 군선교목사들이 인사하고 있다.
5. 총회 참석 대원들에게 커피와 다과 등으로 섬긴 예성사모회 회원들

우성(右星) 손택구 목사 제15주기 추모예배

모시는 글

평생 성결만을 연구하시고 성결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신 "성결 바보" 故 우성 손택구 목사님의 제15주기 추모예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시고자 합니다. (「성결의 글 모음집」을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 일 시 : 2026년 6월 29일 오전 11시
- 장 소 : 성결대학교 학술정보관 6층(아립국제회의실)

| 주관 | 우성기념사업회 회장 문정민 목사
사무총장 김상인 목사

